

독서 전문가들의 책 읽기 노하우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영역별 책읽기 안내서 『나는 이렇게 읽었다』를 출간했다.

집필에는 우리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소속 고봉준, 전중환, 전호근 교수 그리고 예술디자인대학 윤민희 교수 등 6인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저자들은 각각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글을 읽는 방법과 책 읽기 경험의 중요성, 해당 분야의 추천 도서를 소개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독서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글은 각 필진의 전문 분야에 따라 교양, 문학, 인문고전,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까지 총 6개로 나뉘어 있다. 내용은 개인적 독서 경험과 학생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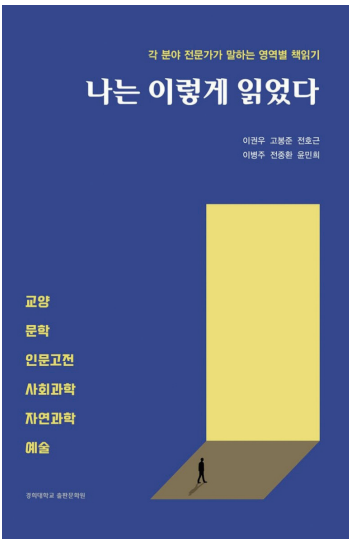
가르치는 교수이자 독서의 전문가로서의 조언이 균형을 이뤄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오늘날 ‘독서’가 취미라고 말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거나 남다른 삶의 방식을 지녔음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렸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독서 보다는 전자기기와 여가 생활이 교양을 드러내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시대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교육과 일상의 대부분을 영상이나 콘텐츠에 의지해 살아온 세대의 상당수는 대학 입학 후 책 읽기의 어려움을 호소한다”며 대학생들의 책 읽기 실태를 꼬집었다. 저자들은 이처럼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독자에게 독서의 노하우를 알려주고자 『나는 이렇게 읽었다』를 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양도서 읽는 법’을 담당하 이권우 교수는 깊이 있는 책 읽기를 위해 지식의 기초를 키우거나 지식의 폭을 넓히려는 독자에게 교양도서를 추천하고 있다. 그는 교양 도서는 만화책처럼 마냥 즐겁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섬세하게 파악하며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책의 제목을 보며 전체 주제를 짐작하고 글을 읽을 때에는 핵심 단어를 찾아 그 의미를 파악하며 전반적인 논증 구조를 찾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책 전반 훑어보기, 책 뒷표지의 글귀, 목차 그리고 각주를 꼼꼼하게 읽는 것도 교양도서를 읽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문학도서 읽는 법’ 부분을 담당하 고봉준 교수는 자신이 문학평론가이자 교수로서 일하며 독서가 일로 치부될 뻔했던 상황을 이야기한다.



6인의 전문가가 영역별 책 읽기 안내서 『나는 이렇게 읽었다』를 출간했다.

고 교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읽은 책은 언제나 그 용도가 끝나면 잊힌다”며 이러한 책들은 독자를 자극하지 못하고 책을 읽은 후에도 정보 이상의 것을 가져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 문학도서를 읽을 때 빠르게 읽거나 정보를 캐내려 하기 보다는 책이 나에게 정보 이상을 주도록

록 천천히 읽고 독서 과정에서 내용을 정리하며 자신을 작품 속에 대입하는 등 작품과 대화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말한다. ‘감성능력의 회복, 타인의 삶에 대한 경험, 그것들을 통해 ‘나’의 삶을 성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문학작품을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소개한 고 교수는 독자들이 책읽기를 통해 정보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길 희망한다.

고 교수는 “이 책은 특정 학문 전공자임에도 책읽기가 어렵게 느껴지거나, 전공 이외 영역의 책을 읽고 싶으나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는 대학생, 다양한 영역의 책읽기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 모두에게 유의미한 길잡이”라며 책의 쓰임새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이 책에 나온 책 읽기 방법이 유일한 것이 아닌 첫 번째 방법으로 여겨지고,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독자 스스로 자신만의 책 읽는 방법을 고민하기를 바란다”는 마음도 전했다.

색색깔로 수놓은 풍경

강린희 기자 linhee0710@khu.ac.kr

“작품들마다 특별한 이야기와 애정을 품고 작업을 합니다. 실을 일일이 손으로 꼬아서 한 땀 한 땀 수를 놓을 때면 시간도 많이 들고 몸도 힘들지만, 작품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힘이 됩니다. 무엇보다 작업하는 동안 느끼는 행복이 소중한입니다.”

김선영 작가는 국내에 몇 없는 현대자수 화가다.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대학교 섬유예술학과에 졸업 전 시에서 실크사로 작업한 풍경화를 보고 자수에 매료됐다고 한다. 이후 대학에서 섬유예술학을 전공하며 자수 작업을 시작했고, 우리학교 아트퓨전디자인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 다수 공모전에서 수상하며 현대자수 화가로 활동하게 됐다.

과거에 자수는 여성들의 소일거리로 인식되며 실용성과 장식성을 목적으로 했다. 하지만 문화, 종교, 기후 등의 영향을 받으며 조형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했다. 현대자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회화 기법이다. 김 작가는 “자수는 크게 동양자수와 서양자수로 나뉘는데 현대자수는



김선영 작가는 위 작품(추억은 바람에 날리고 낭만은...)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는 편안함과 휴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김선영 작가 제공)

그 두 기법의 장점을 살려 새로 탄생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반 자수와 다르게 평면에서 대상의 두께를 도드라지게 표현하는 반부조적 입체감을 살릴 수 있으며, 사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것들도 수놓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수에 쓰이는 실은 크게 면사, 실크사, 화학사로 나눌 수 있다. 김 작가는 그중에서 반짝임의 광택이 특징인 실크사를 사용한다. 실크사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고 섬세한 표현부터 거친 고목나무의 굳건함까지 다양한 질감을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 김 작가는 “만약 누에고

치가 없었다면 제 작업은 감히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며 실크사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또 김 작가의 작품은 나무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나무의 질감을 자수 기법으로 표현하는 법을 고민하다 우리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스페이스 디자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꽃이나 나무 등 식물을 주재료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입체적이고 반부조적인 작품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나무에 대한 고찰과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다수의 작품을 작

업한 김 작가는 가장 마음이 가는 작품으로 ‘추억은 바람에 날리고 낭만은...’을 꼽았다. ‘추억은 바람에 날리고 낭만은...’은 실크 천에 염색과 자수 기법을 혼합해 작업한 작품이다. 김 작가는 “도심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는 편안함과 휴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며 작품을 해설했다. 이외에도 5월의 푸르름을 표현한 ‘나무 II(Tree II)’와 가을 풍경의 정취를 보여주는 ‘내 마음의 풍경(Landscape of My Heart)’을 소개했다.

하지만 현대자수 작업이 마냥 행복하고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다. 현대자수 작품은 아날로그적 결과의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비교적 많은 시간이 걸린다. 또 웅크린 자세로 오랜 시간 집중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육체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 허리, 어깨 등 관절 부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김 작가는 손목 관절을 수차례 수술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빠르게 돌아가는 현시대 속 그림의 미학을 현대자수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데, 현대자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 제가 이 분야 명맥을 잇고 싶다”며 작업에 대한 열정과 포부를 밝혔다. 또한 작품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벼운 운동도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작가는 작업실을 겸해서 화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김 작가의 작품을 보고 현대자수에 흥미를 느껴 화실을 방문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작업 과정이 힘들어 두세 달 정도만 방문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업 문의도 줄었고 전시 활동도 어렵다며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을 전했다.

그럼에도 그는 인터뷰의 끝에서 “모든 학생 여러분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만들어나가시길 바라고, 그 과정에서 행복과 성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